여수섬박람회 61일 여정 마침표…섬의 미래 있다

4일 돌산서 폐막…'세계 섬의 날' 제정 촉구

섬 문화 보전 등 5대 실천 담은 선언문 발표

2026여수세계섬박람회가 섬의 자연과 문화 보전, 기후위기 공동 대응 등을 위한 실천 의지를 담은 선언문을 발표하며 61일간의 여정을 마무리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4일 여수 돌산 주행사장에서 민형배 전남광주시장과 서영학 여수시장, 박수관 박람회 민간위원장, 국회의원, 지방의회 의장, 여수시민과 관람객 등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2026여수세계섬박람회 폐막식을 개최했다.

폐막식은 박람회 주요 장면을 담은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감사 인사, 폐회 선언, '여수 섬 선언문' 낭독, 축하공연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영상에는 61일간 박람회에 참여한 섬 주민과 자원봉사자, 운영 관계자, 관람객들의 모습이 담겼다.

민형배 시장은 감사 인사를 통해 박람회 개최에 힘을 보탠 시민과 관계자들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다. 이어 서영학 여수시장의 폐회선언으로 박람회 공식 일정이 마무리됐다.

이날 발표된 '여수 섬 선언문'에는 ▲섬의 자연과 문화 보전 ▲기후변화 공동 대응 ▲섬 주민의 건강과 안전 증진 ▲환경보전과 지역개발의 조화 ▲'세계 섬의 날' 유엔 국제기념일 제정 촉구 등 5대 실천 의지가 담겼다.

선언문은 민형배 시장과 서영학 여수시장, 박수관 민간위원장, 시민 대표 등 5명이 나눠 낭독했다. 이어 어린이 30명과 관람객이 함께하는 카드섹션 세리머니도 진행됐다.

축하공연에서는 여수시립국악단의 풍물놀이와 여수시립합창단의 합창, 박람회 홍보대사 한수정의 트로트 공연이 이어졌다. 폐막식은 불꽃놀이를 끝으로 막을 내렸다.

민형배 시장은 "2026여수세계섬박람회는 세계 여러 나라의 섬들이 여수에 모여 서로의 역사와 문화를 나누고, 기후위기와 섬의 미래를 함께 고민한 뜻깊은 자리였다"며 "박람회를 위해 힘을 모아준 여수 시민과 섬 주민, 자원봉사자, 관계기관 등에게 깊이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박람회가 남긴 성과와 과제를 꼼꼼히 살피고, 섬이 가진 산업과 성장의 기회를 더욱 넓히겠다"며 "섬 주민이 더 편리하게 오가고, 안심하고 의료서비스를 받으면서 섬에서 오래도록 살아갈 수 있도록 실질적인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최명진 기자

전남광주시 '시민의 날' 7월1일 추진

통합 출범일, 전 권역 선호도 1위

'임을 위한 행진곡' 공식행사 활용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통합 출범일인 7월1일을 '시민의 날'로 지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시민의 노래는 별도의 상징물로 지정하지 않고, 시민 선호도 조사에서 1위를 차지한 '임을 위한 행진곡'을 중심으로 시 공식 행사에서 부르기로 했다. 다만 행사 성격에 따라 다양한 노래를 함께 선보이는 방식으로 운영할 방침이다.

전남광주시는 시민 의견 수렴 결과와 통합특별시 출범의 역사적 의미, 지역 간 화합과 통합의 상징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이 같은 방침을 마련했다고 4일 밝혔다.

시민의 날로 추진되는 7월1일은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공동체로 새롭게 출발한 날이다.

시민 의견 수렴 결과 7월1일은 표본 여론조사에서 47.5%, 추가조사에서 62.5%의 지지를 얻어 두 차례 조사 모두 선호도 1위를 기록했다. 특히 전남광주 모든 권역에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추가조사는 시민소통 온라인 플랫폼을 비롯해 주민자치위원과 27개 시·군·구 공무원, 국내외 향우 등 6천879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시민의 노래와 관련해서는 두 차례 의견 수렴에서 모두 가장 높은 선호도를 보인 '임을 위한 행진곡'을 중심으로 공식 행사에 반영하기로 했다. 시민의 날 기념식과 정례조회 등 주요 행사에서 시민과 함께 부르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다만 새로운 노래를 원하거나 다양한 곡을 함께 사용해야 한다는 시민 의견도 반영했다. 이에 따라 특정 노래를 조례상 공식 상징물로 정하지 않고, 행사 성격과 취지에 맞춰 여러 노래를 함께 부르는 방식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전남광주시는 앞으로 '시민의 날 조례' 제정을 추진해 시민의 날을 지역 화합과 공동체 의식을 높이는 대표적인 기념일로 만들어갈 방침이다.

윤난실 시민주권부시장은 "시민의 날이 전남광주시의 새로운 출발을 기념하고 전남과 광주가 하나의 공동체로 화합하는 뜻깊은 날로 자리잡기를 기대한다"며 "시민 모두가 함께 참여하고 공감하는 기념일이 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기수희 기자

李대통령, '대통령의 Y' 유튜브로 대국민 소통

오늘 오후 9시 공개…2-3주 간격 방송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들과 직접 소통하는 유튜브 프로그램 '대통령의 Y'를 시작한다고 청와대가 4일 밝혔다.

성기홍 청와대 홍보소통수석은 "이 대통령은 취임 후 기자회견 또는 기자간담회를 23차례 소화했고, SNS를 통해서도 일상적으로 국민과 소통을 해왔다"며 "여기서 더 나아가 뉴미디어 플랫폼인 유튜브를 통해 국민의 궁금증에 답하고 정책을 설명하기 위해 이번 프로그램을 마련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첫 녹화를 마쳤으며, 이는 다음 날인 5일 오후 9시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다.

한 회차 분량은 30분가량으로, 2-3주 간격으로 정기적인 소통을 이어갈 계획이다.

성 수석은 "유튜브 플랫폼의 특징을 고려해 연설이나 공식 회의 석상의 발언과는 달리 편안한 분위기에서 국민의 언어로 최대한 진솔하게 의견을 피력하고 국민의 질문에 답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연합뉴스



잔디 위에서 연구 성과 공유 2026 용봉학술제 G-Fair가 4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전남대학교에서 열려 학생들이 전시된 연구 성과 포스터를 살펴보며 의견을 나누고 있다. '잔디 위로 쏟아진 질문들, 오픈랩 페스타'를 주제로 6일까지 열리는 이번 학술제에서는 19개 단과대학(원) 및 연구소가 참여해 대학원생 논문 610건을 발표하고, 학술 교류와 체험 프로그램 등을 진행한다. /조영권 기자

美 민주당, 중간선거서 의회 권력 장악

하원 4년·상원 2년 만에 모두 탈환

트럼프 "결과 전적수용" 패배 인정

미국 민주당이 3일(현지시간) 치러진 중간선거에서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연방 의회 권력을 모두 장악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집권 2기 반환점에 행정 권력과 입법 권력이 양분된 것으로, 내년 1월초 제120대 의회가 출범하면 미국 정치권은 트럼프 행정부와 민주당 의회가 거칠게 대치하는 정국 속으로 빠져들 전망이다.

미 NBC와 ABC, CBS, CNN 등 주요 방송사는 미 동부시간으로 중간선거 개표가 한창인 이날 오후 10시를 조금 넘긴 시간 민주당이 하원 다수당을 차지할 것이라는 예측을 보도했다. 이어 오후 11시30분께는 상원까지 민주당이 장악한다는 예측까지 속속 발표됐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이 상·하원을 한꺼번에 탈환한 건 2006년 이후 20년 만이다.

연방 하원의 경우 이번에 새로 뽑는 전체 435석 가운데 218석을 차지하면 승리하게 되는데 민주당은 이를 훌쩍 뛰어넘어 최소 244석을 확보할 것으로 NBC는 내다봤다.

하원과 달리 상원은 양당이 치열한 접전을 벌이는 경합주(州)가 7곳이나 됐지만, 개표에서 예상외로 민주당의 선전이 이어지며 일찌감치 민주당이 승리를 확정했다.

아직 결과가 나오지 않은 경합주 결과와 관계없이 민주당이 상원 의석 과반인 51석을 확보하는 것을 넘어 최소 53석을 차지하게 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곧바로 공화당이 참패한 선거 결과를 인정했다.

그는 뉴욕타임스(NYT)와의 인터뷰에서 "결과를 전적으로 수용할 의향이 있다. 우리는 민주당과 협력할 것이며, 협력을 고대한다. 우리는 아마도 뭔가 합의를 이뤄낼 것"이라고 NYT가 보도했다. /연합뉴스

▶1면 '한화에어로 순천사업장'서 계속

민형배 시장은 "대한민국이 아시아 글로벌 우주항으로 나가는 길의 출발점은 전남광주"라며 "국내 최초 우주발사장인 나로우주센터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순천사업장이 더해지면서 전남광주가 대한민국 우주발사체 산업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했다"고 말했다.

이어 "순천의 발사체 생산 기반과 고흥의 발사 기반을 연계하고, 민간 주도 우주산업 육성과 제2우주센터, 우주항공진흥원 유치에도 힘쓰는 등 대한민국 우주산업 발전에 전남광주가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광주매일신문
"좋은 生活사랑받는 廣告안내"
가장 알뜰하게
최고의 만족을 드리는 광주 매일신문 廣告.
사랑받는 廣告로 마음과 마음의 만남을
소중하게 이어 드리겠습니다.
광고문의 및 출장접수
▶광고국/☎ 650-2099
650-2071~2
F.650-2016
▶시내지국 및 각 지방지사

구독신청
배달사고
문 의
650-2022

부실채권 전문가와 상의하면 길이 보입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가 함께 합니다
외상대금 공사대금 장비대금 전세금 부도어음
돈
받아 드립니다
빌려준돈 투자금 약정금 임대료 구상금
선수금, 조사비 받는 회사가 좋을까요?
돈도 못 받고 있는데...
당사는 선수금 조사비가 없습니다.
새한신용정보(주) 호남본부 특수채권팀은
호남지역은 물론 전국을 무대로 그동안 쌓인
다양한 노하우와 뛰어난 정보력, 성실함으로 회수가 힘든
채권, 법인채권, 상거래채권 등을 위임받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신속한 채권회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못 받은 돈 때문에 고민 하십니까?
지금 연락 주세요!!
062-228-0990, 010-4601-1390

광주지방 중대범죄수사청인접
부동산 매물들입니다
1) 매매{매가11억}중흥6거리 광장코너 땅상업지 대지93평
2) 매매{4억5,000}중수청인접 대69평4층건물 월세330만원
3) 매매{13억5,000}중수청인접 대지193평 단층건물 평당700
법률사무실, 커피, 카페, 음식점 최적
4) 매매{2억8,800}중흥6거리 인접 대지64평 평당450만원
5) 임대 중수청인접 대로변 1층90평(면적분할가)
법무사, 변호사사무실 최적
6) 임대 중수청인접 대로변코너 2층70평(면적분할가)
[급매전문] 즐거운공인중개사무소
대표공인중개사대표 유재관 010-6495-3787
광주 북구 임동480 LH주공아파트 옆 동운고가입구
등록번호 북구29170-2019-00097

세상의 모든 아이들이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상담
1976년부터 우리지역에서 발생하는 기아, 미아, 미혼모 아동 및 결손아동을 일시보호 후 친부모를 찾아주거나 국내입양 상담으로 양부모를 결연하여 아동들에게 따뜻한 가정을 만들어 주는 아동복지 전문기관입니다.
일시보호, 국내입양 후원 및 자원봉사
광주영아일시보호소
상담문의 062)222-1095, 1096

대명OA
취/급/품/목
▫복사기 ▫컴퓨터 ▫FAX
▫레이져 및 잉크젯 프린터
▫전산소모품
▫레이져(토너/드럼)
▫카트리지
▫각종 잉크류
▫복사용지
▫팩스용지 ▫판매
▫임 대 ▫A/S
T.375-5880